총지종 교세 확장 '올인'

종단특별기획단 발족 … 종책 재정비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이 종단 특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종단 중흥과 교세 활성화 작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총지종은 올해로 창종 35돌이 된다. 그러나 총지종의 교세는 창종 당시에 비해 반으로 현격히 줄었다. 이에 총지종은 자구책 마련의 일환으로 중앙 통리원과 별개의 독립기구인 종단특별기획단을 6월초 발족했다.

신도 눈높이 맞게 다양한 법회 개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종헌종법 개정
논란 많은 불상봉안 문제 탄력적 운용
승직자 대상 정기 단일집체교육 구상

기획단은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불사법요개정위원회, 종헌종법개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포교홍보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불상봉안문제, 획일화된 법회의식 개정화 작업, 밀교중심의 교리이론에서 벗어나 범불교적인 교리 확대, 예비스승 교육의 체계화, 종도교육의 현대화, 요양원 건립 및 납골당 건립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세 확장을 위해 기획단에서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불사법요와 종헌종법의 개정이다. 현재 총지종의 법회는 시기나 목적, 용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법요 식순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법회에서는 절이나 법구 사용을 생략한 채 보통 두 시간에 걸쳐 '옴마니반메훔' 정근을 하는 등 획일화된 법회진행으로 신도들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총지종은 신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법회 개발과 함께 각 법회마다 목적에 맞는 특화된 불사법요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에 꾸려진 불사법요개정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종헌종법과 제반규정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단 발전을 위한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대는 변했는데 창종 당시 종헌종법을 사용하다보니 법령이 상충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많다. 예를 들면 '이혼자녀나 서출의 자녀는 스승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법조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총지종은 기획단의 교육포교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불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총지종 승직자들은 서울과 부산에서 이원체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는 1년에 수차례씩 단일 집체교육을 구상중이다.

일반 교도들의 신행교육도 그동안 너무 어려운 밀교 교리 위주에서 탈피해 신도들의 근기에 맞는 범불교적이고 쉬운 교리체계를 새롭게 확립할 계획이다.

종단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불상봉안 문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새롭게 건립되는 김해지역 사원에 첫 야외불상을 모시는 방안을 기획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효강 종령은 "총지종은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종단 중흥을 마련해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몇 년 전부터 기획단 발족을 준비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했다"며 "기획단은 종단중흥과 교세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구상 수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단특별기획단장에는 우승 통리원장, 지도위원 및 불사법요 개정 위원장에 법공 정사, 지도위원 및 종헌종법 개정위원장에 지성 정사, 지도위원 및 사회복지지도위원에 원송 정사, 지도위원 및 교육, 포교 위원장에 화령 정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캐나다 평화사 7월 1일 개원
천태종 두번째 해외포교당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의 두 번째 해외포교당인 캐나다 평화사(주지 김세운)가 3년간의 긴 불사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개원법회를 갖는다. 천태종은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지는 평화사 개원법회 참석을 위해 6월말 종정 김도용 스님과 주정산 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의 임원급 스님 30여명이 토론토를 방문할 예정이다.3년 전 리치먼드힐에 주택을 구입한 평화사는 지난해 말로 개 · 보수작업을 마쳤다. 평화사는 5만여 평의 대지에 180여 평 규모의 법당 건물과 50여 평 규모의 요사체 등으로 이뤄져 있다. 건물외관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단장해 전통사찰의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김주일 기자

태고종, 경기도 일산 황룡사
종단 등록 취소 · 승적 박탈

태고종은 최근 무속행위와 관련해 최근 물의를 빚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황룡사에 대해 6월 7일자로 종단 등록을 취소하고 승적을 박탈했다.

또한 태고종은 6월 15일 신촌 봉원사에서 전국종무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종단에 등록된 전국 사찰을 재정비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단행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체계와 감사 등을 통해 황룡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매매
토지브로커 김모씨 기소

서울 서부지검이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사찰인 신촌 봉원사 토지를 불법 매매해 조계종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최근 서부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소된 조계종 측 前 주지 성국 스님은 무혐의 처리했다.

조계종은 2월 3일 서대문 봉원사 인근의 봉원동 42-17번지 294평이 불법으로 매매된 사실을 발견하고, 조계종측 현 주지 법안 스님 명의로 성국 스님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에 고소한 바 있다.

조용수 기자

호국 수심사 이전 못해 발동동

부대 진지 구축으로 강원도 양구의 호국 수심사가 헐릴 위기에 처했다.

부대 진지구축, 10월 법당 헐려
예산부족으로 사라질 위기

호우주의보가 내려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6월 14일. 강원도 양구군 원당리에 위치한 산악 포병부대에 근무하는 한상국 상사가 급하게 영내 법당인 호국 수심사를 찾았다. 법당 건물이 50년 가량 되었고 보수를 못해 천장에 비가 새는 등 관리가 필요해서다. 법당에는 대대 군종병 변상경 상병과 포대 군종병 최종희 상병이 먼저와서 요사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로 받고 있었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겪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텐데…"

군종병들과 인사를 나눈 한 상사는 그나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상단 위 천정이 새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호국 수심사는 1960년 5월 10일 당시 부대장과 간부불자들의 원력으로 당시 취사반으로 쓰던 건평 45평 규모의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대급 법당이라 군법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군종병조차도 다른 업무를 보면서 추가 업무로 법당 관리를 하고 있어 건물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은 한상국 상사와 일부 간부 불자들이 군종병들과 함께 법회를 보며 법당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수 공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부대에 신형 무기가 도입되면서 진지 구축 관계로 올 10월까지 법당이 헐릴 위기에 처해 매주 법당을 찾고 있는 50여 불자 장병은 실의에 빠졌다. 비가 세고 노후화가 된 법당이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변상경 군종병은 "일요일이 되면 전우들이 먼저 법당에 가자고 말 할 정도로 법회 시간을 기다린다"며 "그나마 비가 세고 노후화 법당이지만 불평 한번 안하고 법회를 보아왔는데 앞으로 어디에서 법회를 보아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부대의 배려로 법당 이전 부지를 선정했고 50평 규모의 법당을 신축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지만 문제는 예산. 공병대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소 6천만원은 있어야 법당을 새로 지을 수 있지만 화주자가 없어 현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앉아 있을 수만 없어 한 상사와 군종병이 주말을 이용해 화주를 다니고 있지만 일반 사찰에서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상국 상사는 "수원 정혜사, 서울 삼보정사, 이교재 법사님, 양구 심원사, BBS 교통통신원 등에서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어 겨우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대급 법당이라 사단이나 연대 법당보다 더 열악하지만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에는 더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후원을 당부했다.

매월 4째주 법회 지원을 하고 있는 3군단 김민제 법사는 "장병들의 맑은 눈을 볼 때면 빨리 법당이 신축되어 편안하게 법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도 모연을 하고 있지만 뜻있는 불자들의 십시일반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후원계좌 : 201475-01-001421 우체국 호국 수심사 문의 : 010-507-6625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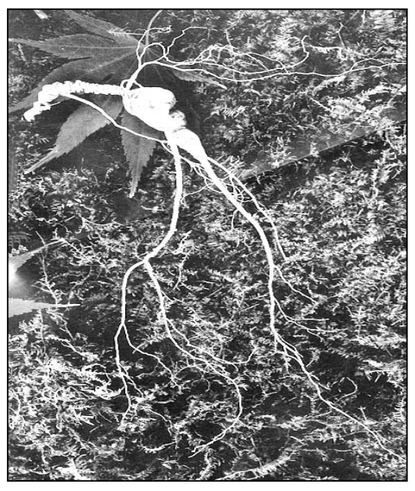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元 · 氣 · 回 · 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